

## 출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초판 1쇄 찍은날 / 1995년 11월 20일



지은이 / 이광수  
편역 / 이경훈  
펴낸이 / 이정옥  
펴낸곳 / 평민사

주소 / 서대문구 남가좌 2동 370-40(120-122)

전화 / 375-8571(영업부) 375-8572(편집부)

팩시밀리 / 375-8573

등록번호 / 10-328호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드립니다.

## 책머리에

이 책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 동안 『京城日報』, 『國民文學』, 『綠旗』, 『東洋之光』, 『每日新報』, 『文藝春秋』, 『文學界』, 『三千里』, 『新時代』, 『朝鮮』, 『春秋』 등에 발표된 이광수의 친일 시, 논설, 평론, 수필, 좌담 등을 묶은 것이다. 이 중 한국어로 발표된 것은 모두 원문대로 신되 띄어쓰기만을 손보았으며, 일본어로 씌어진 것은 현재의 표기법에 따라 번역하였다. 또 좀더 자세하고 도음되는 주석을 달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이 책은 올 2월에 간행된 춘원의 친일소설 자료집인 『진정 마음이 만 나서야말로』(평민사)에 소개된 친일소설들과 더불어 춘원 친일문학의 전 반적인 윤곽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우리는 이제까지 어느 정도 막연하게 규탄되어 왔던 춘원 친일문학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크게 내선일체론, 충후봉공론, 대동아공영론, 국민문학론 등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춘원의 내선일체론은 스스로 제국주의의 주체가 되려 함으로써 제국주의의 피해자로서의 자기동일성을 추구하려는 시도와 연관된다. 그를 위해 춘원은 창씨개명을 일러 중국화 이전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세웠으며, 이와 더불어 일본과의 고대사적 상통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는 결국 춘원 자신의 개인적, 민족적인 고아의식과 관련되는데, 그리하여 춘원은 “폐하는 아비님이시오, 황실은 큰댁”이라는 관점을 통해 약육강식적 제국주의와 고아로서의 개인적인 시련 모두를 벗어나는 “정(情)”으로서의 친황 및 일본 국체를 상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일종의 새아버지 찾기로서의 내선일체를 논리화, 현실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같은 피, 같은 문화, 같은 언어로써 통일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고대사적 연관이다. 이는 유교화 및 중국화에 대한 비판과 짝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것은 결국 천년 전의 조상이 일본과 조선을 보면, 일본이 더 고향에 가깝다고 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동양서 101 1098048

것이라는 관점으로 귀착된다. 이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유교를 비판하던 계몽주의가 고대사에 대한 강조로 변모, 그를 통해 일본과의 동일화 움직임 및 그에 대한 가능성과 자유의 감각을 구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소설 「세조대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중국 대신 일본을, 유교 대신 불교나 고신도를 긍정하는 역사관과도 상통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춘원의 내면에 있어서의 원초적 장면 문제와 연관된다. 는 사실이다. 즉 어린 시절 춘원의 정신적 외상이, 못한 죽은 아버지와 그보다는 훌륭한 살아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냉정한 세파라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민족적 문제와 관계해 그것은 국권을 상실한 못한 아버지로써의 유교적 조상과, 보다 훌륭하고 일본과 연관이 깊은 불교나 고신도적인 할아버지로서의 삼국시대, 그리고 냉정한 제국주의적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라는 반복적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춘원이 고대를 선택하는 것의 의미는 할아버지를 통해 모진 세파에서 벗어나 큰아버지 집에 속하고 싶다는 식의 욕망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춘원의 황민화론은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주장했던, 민족개조론적 개조의 모티브를 일본인으로 확장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바탕에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교육받은 춘원 자신의 열등감, 또는 더욱 근본적으로는 「흙」에서 유순 대신 운정선을 선택하는 허승의 태도로 상징되는 욕망 및 허위의식 등이 작용하고 있을 터이다.

한편 춘원이 황민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생활의 불교화인데, 이는 춘원의 인연 및 업보론과 더불어 황민화론의 핵심적 사항일 것이다. 즉 춘원은 유교를 사대적이며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불교를 민족적이며 과학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일본이 조선을 제국주의적으로 침략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인연”이라는 관점을 세우며 불교적 의미의 “동업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황국신민”이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조선인은 스스로 조선인임을 잊고 황민화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불교적인 생활 개선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인연을 말하는 춘원에게서 과거의 계몽주의적 근대주의는 상당한 변모를 겪게 된다. 이는 결국 진화론적, 약육강식적인 무정한 제국주의의 논리를 “일시동인”, “황은” 등 정(情)의 외관으로 합리화하거나, 또는 인연이라는 개념

으로 식민지 지배 및 피지배의 역학관계를 조극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따라서 징병제에 대해 춘원이 감격하는 것은, 그것이 조선인의 완전한 황민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일본이라는 대민족 안에 포섭된 조선인을 향해 일본의 지도자가 되라고 춘원이 논할 때, 내선일체는 단지 제국주의의 피해자임을 벗어나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 제국주의의 주체가 되려는 춘원류의 “타력본원”적인 욕망과도 관계하게 된다. 춘원의 내선일체론과 관련된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그것일 터이다.

다음으로 춘원의 총후봉공론은 크게 불교가 그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 개인과 전체 및 수양의 문제 등과도 깊이 연관되는 것이다. 춘원은 국제명징과 충성을 강조하며 생활의 황민화, 합리화, 임전화 등을 말하는데, 이는 “국가의 인적 자원”과 관련된 실력 배양의 면이 일본이라는 국체를 통해 총후봉공론으로 변모된 것이다. 한편 춘원은 국제명징과 관련하여서 “내 것”, “나”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별사”의 이름을 강조하는데, 이는 소위 신체제적인 경제 관념과도 연관되는 것인 동시에, 또 과거 춘원이 말했던 북중하는 자유와 관련된 지도자론 및 단결론 등의 반개인주의적, 반 민권론적 관점이 변모된 것이기도 하다. 이때 과거 춘원이 강조하던 “단체”의 문제는 일본이라는 국가로 변모되어 전체주의적 개념으로, 또 그 단체의 지도자는 친황으로 나타나 그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충성과 관련된 노동이란 “구실”로서의 “제왕적 근로”일 터, 이는 과거 “구실주의”를 주장하던 춘원의 관점이 근대국가의 면 및 봉건성이 착종된 일본에 대한 충성으로 귀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구실 및 충성의 논리는 결국 일제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반서구적 대항논리인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비판, 또는 일종의 윤리로서의 성(誠)의 문제와 깊이 연관된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춘원이 말하는 “근로”의 개념인데, 그것은 영리를 추구하거나 자본과 대립된 것으로 파악되는 인간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지위 및 직분에서 봉사하고 봉공하는 것, 다시 말해 친황에 대한 “익찬”인 것이다. 이는 “자기 희생” 및 종교적 함축을 가진 것이기도 하며, 또 “경제의 대권 봉

환"이라는 신체체적인 것이기도 하거나, 이같은 관점에서 춘원은 자본주의를 아귀도 및 축생도에 비유하고, 또 공신주의는 "구복(口腹)"을 하느니라 함은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춘원이 친일 이전에도 주장하였던 바, 마음을 강조하며 육망을 버리라는 입장이 변모된 것인데, 이때 근로를 통해 더욱 강조되는 것은 개인과 국가를 상측(相卽)시키는 것으로서의 근로를 통한 "가치의 귀정(歸正)" 문제이다. 물론 이같은 자본주의 비평은 결국 서양 문화 및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일체의 비평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그 자체가 이미 일본의 자본주의 논리 속에 있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같은 가치의 귀정과 관련하여 춘원이 내세우는 것은 "안분(安分)"이라는 유교적 덕목이다. 즉 춘원은 분수에 만족하는 "고상한 인격"을 말해 이는 성(誠)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일본의 "칭명심"에 도달하기 위한 "신도 실천"과 하나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결국 "고도 국방국가" 및 "공익우선" 등을 내세우는 일체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원에게 그것은 "어(我)의 극복"과 "성(誠)의 수도"라는 하나의 윤리적 가치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총후봉공론과 관련하여서 춘원은 근로를 경제 행위라기보다는 군자의 수련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춘원은 또 "근로삼매경"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노동하는 자의 태도 문제를 말한 것이지만, 한편 춘원이 총후봉공론을 위해 춘원류의 "황도불교"적인 불교적 세계관을 동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근로는 궁극적으로 일본 국체의 "대승적 이상"을 익찬하는 것이며, 이는 춘원이 말하는 "참회"의 문제와도 연결될 것이다. 즉 『佛說觀賢菩薩行法經』에서 말하는 "대승을 가진 자에게 공급, 공양, 예배"하는 것으로서 "팔굉일우"의 대승을 가진 일본 국체 및 친황에 봉공한다는 관점인데, 이때 총후봉공으로서의 근로는 곧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차별 등을 없애게 하는 "정당한 인(因)"을 쌓는 것과 관련된 일종의 "보살행"이 된다. 그것은 "목은 조선인으로 죽어 일본 국민으로 재생하는 길"인 동시에, 또 구체적으로 "사중은(四重恩)"을 갚는다는 "보은"의 입장으로 파악된 근로이기도 한데, 춘원은 이를 통해 "도사"나 "관세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같이 소아를 버리고 직분에 봉공할 때, 춘원은 그 행위를

통해 윤리, 종교, 국가, 세계를 통일한다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는 결국 과거 춘원이 말했던 "후천" 및 "상애의 세계"를 위한 실천의 현실태를 일본의 "팔굉일우" 및 "세계사적 입장", 또는 "근대의 초극"과 관련된 전쟁에서 발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춘원의 대동아공영론은 총후봉공론과 마찬가지로 근대의 초극 및 춘원의 "황도불교"적 사상과 깊이 연관되는 동시에 후천의 개념이 변모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같은 춘원의 대동아공영론은 내선일체론과 뿌리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먼저 춘원은 일체의 전쟁을 통해 서양사 중심이 아닌 새로운 역사적 단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그 역사적 단계는 조선과 이상 및 이해가 일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세운다. 즉 춘원은 불특 경계 하에서 조선이 산업적 병참기지가 됨으로써 공업화를 이룰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일체의 소위 "팔굉일우의 이상"에 대해, 그것이 "가장 진보되고 세롭고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것은 불완전하고 투쟁적인 서양의 "선천"에 대해 과거 자신이 꿈꾸었던 "사랑의 새 종교", "상애의 세계" 및 "후천"을 대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춘원이 대동아공영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대 이상 실현의 전사의 영예"를 가지게 되었다고 감격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같은 대동아공영의 맥락이 내선일체론의 외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일체가 조선의 "인류사의 성지"로 논하고, 또 춘원이 이제 조선인은 더 이상 "약소 민족도 패전국민도" 아니라고 하며 조선인의 "대사명" 및 "결호의 시기"를 "자부심"과 더불어 논할 때, 이는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를 다른 아시아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 해소하는 역학관계를 산출하게 된다. 즉 일본과 관계해서는 피지배자일 뿐이지만, 대동아공영권의 다른 아시아 민족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조선인은 오히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내선일체론과 관련된 하나의 심리적 핵심일 수 있을 터인데,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관계는 서양과의 그것이다. 즉 동양을 침략, 유린하는 서양은 이제 일본과의 적대적 관계를 대신한 진정한 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내선일체를 외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는 「이차톤의 사」에서 단군을 한 조상으로 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합해 중국과 싸운다는

고구려 신하 매추한가의 입장과도 구조적 상동성을 가지고 있거니와, 이로써 춘원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질을 변화시켜 그 제국주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제국주의를 초극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앞서 말했던 서양의 침략주의 대 팔괘일우의 성전(聖戰) 의식이 이러한 대립이 관여함과 동시에 「해삼위로서」 등에서 보이는, 춘원이 과거부터 느꼈던 서양인에 대한 열등감 및 공포 등이 작용하고 있을 터이다.

그러하여 춘원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참전을 권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물론 민족보전 및 실리의 입장도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참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춘원은 과거 조선의 문약을 비판하며 이순신 등을 고평하던 관점을 차용, 원술망의 이야기가 소설로 창작되고, 화랑의 정신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때 춘원의 민족개조론은 “친황의 방패”가 되는 것이라 는 또 하나의 내포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상예”를 강조하는 것과 전쟁 사이의 모순에 대해 춘원은 「육장기」를 통해 “차별세계”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니와, 특히 「법화경」의 「안락행품」에 보이는 “전륜성왕”의 전쟁이야기를 인용하며, 악을 파쇄하고 선을 옹호하는 것으로서의 전쟁 합리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춘원에게 일제의 전쟁은 “점진적(接進的) 전쟁”인데, 따라서 춘원은 전쟁의 양상을 신성과 동물성의 대립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아의 정신을 순국정신과 동일시하는 “황도불교(皇道佛敎)”적인 면이 작용하고 있거니와, 이로써 춘원은 일제의 전쟁을 “부처와 보살의 전쟁”으로 파악, 자유주의적인 약육강식적 질서를 초극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쟁은 “정불고토 성취중생”의 것이며, 이때 죽음이란 일종의 고행이거나, 세 윗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인연법에 의한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춘원에게 참전이란 단순한 현실 타협이라기보다는 개인과 국가, 윤리, 종교, 근대성의 문제, 세계사 및 조선의 이익 등을 종합하는 본격적인 참여 행위였다는 말이 된다. 또 춘원은 일제의 전쟁을 통해 반서구, 반이성, 반합리주의 등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가능성을 보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체는 일체야말로 조선의 입장에서 서구, 이성, 합리주의, 그리고 “선천” 등이었다는 사실이다.

춘원의 국민문학론에서 중요한 첫번째 문제는 한국어의 문제이다. 즉 춘원에게 한국어는 일본어의 일부라는 관점으로 정리되는데, 이같은 파악을 합리화하는 것 중 하나는 언어적 상통성과 더불어 한글이 “신대(神代) 문자”로서 예전부터 존재했으며, 또 양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었다는 관점이다. 한편 소설 「선행장」에서 보이듯이 한국어의 말할 정책, 즉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는 선생과 학생 사이에 벌어지는 학습의 문제로 성격 변화되어 그 실체가 은폐되고 마는데, 이는 한국어 문체와 관련된 춘원의 일반적인 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춘원은 오히려 일본어를 배움으로써 “우수한 일본 정신”을 알게 되고, 또 세계의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또 일본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고 있다는 실리의 면을 내세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작가들에게 일본어에 정통하여 “전일본의 문자”가 되는 라는 야심을 부추키게 되는 것이다. 이때 민족어로서의 한국어 문제는 상실되고, 결국 조선어와 관련해 남은 문제는 일본어를 모르는 한국인 독자에게 “국민정신”을 주기 위한 편의상의 문제가 되고 만다. 춘원은 조선어로 된 문학의 존재 이유를 바로 거기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춘원의 국민문학론은 「문학의 국민성」이라는 글에서부터 시작된 다. 여기서 춘원은 “문물의 구미화”를 비판하며 “신국민문학이 기초공사”로서 “대중문예”를 강조하는데, 이때 대중이란 물론 “국민”과 관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춘원은 “문학은 태어나는 것”이며 “어떤 국민생활의 분비물”이라는 관점을 세우는데, 여기서 전자와 관련되는 것은 문학자의 자기 수양 문제이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국민문학의 주제로서 “흥(興亞)의 성업”을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이다. 문학자의 수양 문제는 「문사와 수양」의 관점이 변화된 것인데, 이를테면 「문사와 수양」에서 비판되던 “일본의 퇴폐문화”가 서구의 문화 및 문학으로 바뀌고 일본문학의 장차 (長處)로서 건진한 국가주의가 강조되는 것이다.

결국 춘원의 국민문학론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로 요약된다. 그것은 조선문학의 문제와 서구 문학의 문제일 터인데, 전자와 관련해서 춘원이 주장하는 것은 조선문의 문학은 일본 국민문학의 일부라는 민족 관념의 청산주의이다. 즉 조선 문학이 묘사할 수 있는 진실한 조선의 모습은 오로지 일본 제국의 구성요소로서의 그것이라는 관점인 것이다. 다음으로 서구문학의 문제와 관련해, 춘원은 서구문학에서는 국민문학의 표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며 근대문학 일반과 국민문학을 대립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신일가지”, “신수첩”이 필요하며 이때 유일한 지도원리는 국가 이상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춘원은 공자의 “詩三百 一言以蔽之 思無邪”를 논하며 이에 대해 서구의 문학은 모두 “음풍(淫風)”에 불과한 사치품이라는 예술의 사치품론을 펼친다. 그런데 이같이 사치품이 생긴 이유에 대해 춘원은 예술이 상품화되고 이윤추구에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즉 자본주의를 비판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해 춘원은 데모크라시가 평등을 오했으며, 더 나아가 공산주의는 열등한 자의 집단력을 이용하여 우수한 자를 지배하려는 것이라고 논한다. 그리하여 이같이 사도에 빠지기 쉬운 예술가에게 부여되는 “강제적인 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및 성인의 가르침과 국가의 범령이다. 이때 춘원이 국민문학의 “구체적 방침”으로 내놓는 것은 바로 이같은 강제적인 외력을 종합한 것일 터인데, 그것은 결국 일본 국체를 통해, “천명(天命)”을 말하는 『서경』의 입장이나 “見性成佛”의 불교적 관점을 종합하려는 것이다. 이때 춘원이 말하는 국민문학은 시대정신의 노예가 아니라, 시대 정신을 시공 보편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는 “천명주의”의 입장에 기반한 “대문학”이 된다. 따라서 춘원은 단순한 “국민적 자각”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논한다. 그것은 “혼”의 문체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춘원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는 우리 민족의 근대에 대한 좀더 철저한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춘원의 친일문학은 변절이나 매국이란 개념으로만 규정·목살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봉건적 질서와 근대적 질서의 경계선(문지방)을 밟은 채, 결국 피식민지인으로서 약육강식적인 근대 질서에 편입된 한 지식인이 자기만적으로 시도한 일종의 근대화 쉼페인(또는 근대국가에 대한 모순된 사랑)이었다는 관점에서 비판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 예로 “민족개조론”이란, 크게 보아 근대사회를 특징짓는 이성, 규율, 훈련 등에 대한 강조와 연결된 것이며, 황민화론이란 그 개조의 구체적 모델을 일본인으로 귀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체는 이같은 “개조”란 결국 스스로가 “타자화” 내지 “동양화”되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때 춘원의 친일문학은 철저하게 타자이자 객체의 논리가 될 터인데, 그것은 첫째 제국주의에 대한 타자 및 동양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며, 둘째 서구에 의한 이같은 타자화에 대항한다는 일체의 대동아공영 논리의 수동적 계기로써 작용한다는 점에서 또 다시 타자화, 동양화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이는 근대적 주체의 문체와도 연결되는 것인데, 이를테면 일제가 “일시동인(一視同仁)”과 더불어 “천황의 적자(赤子)”를 논하고 춘원이 이에 감격할 때, 여기에는 근대적 시민 대신 절대적 주체인 천황의 객체로서의 신민(臣民)이라는, 자기동일성과 관련된 전면적인 무책임의 관점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부처 앞에 선 중생이 되듯이, 또는 『맹자』에서 말하듯이 그 부모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어린 아이가 됨으로써 오히려 춘원은 그가 꿈꾸던 근대 민족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근대화에 일제가 끼친 부정적인 영향의 한 가지 핵심을 지적할 수 있게 된다. 즉 일제는 우리 민족이 어떤 형식으로든 스스로 조신의 봉건적 왕조를 해결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시민혁명 등의 주체적인 역사 체험을 겪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이는 구한국 현실과 이승만의 관계 및 이승만과 4·19를 통해 이 중적으로 간접화되고 있다. 또 이승만은 황손이자 대통령이다), 더 나아가 “대동아공영” 및 서구적인 근대를 초극한다는 명분 하에 “천황”에 대한 신민으로서의 충성 및 익찬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더 시민적 주체의 형성을 왜곡했던 것이다. 따라서 춘원이 일본과의 동일화를 통해 근대국가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더 근대적 시민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타자화의 질곡에 속박되었던 것이다. 춘원 친일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한 입각점은 실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펴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연세대학교의 이선영 선생님, 동경외국어대학의 三支壽勝 선생님, 와세다대학의 大村益夫 선생님,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 출판을 허락해주신 평민사의 이정옥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5년 7월 편자

## ■ 목 차

### 제1부. 시

가끔씩 부른 노래	13
지원병장행가(志願兵壯行歌)	14
영년기세(迎年祈世)	15
어버이	16
우리 집의 노래	17
부여행(扶餘行)	18
선전대조(宣傳大詔)	19
원단(元旦)	20
싱가포르 함락되다	21
진주만의 구군신(九軍神)	23
전망(展望)	26
백천영지훈도순직(白川玲子訓導殉職)	28
조선의 학도여	29
새해	33
새해의 기원	35
승리(勝利)의 일(日)	38
적 함대 찾았노라 — 神兵·松井伍長을 노래함	40
모든 것을 버치리	42

### <번역시>

군선(軍船)	44
명치천황어제근역(明治天皇御製謹譯)	46
명치천황어제근역(明治天皇御製謹譯)	50

### 제2부. 평론, 수필

문학의 국민성	54
---------	----

폭풍기쁜 감격 속에 “씨” 창설의 선구들	60
국민문학의 의의	62
창씨와 나	64
내선일체와 국민문학	67
황민화와 조선문학	75
예술의 금일 명일	78
의무교육과 우리 각오	89
심적 신체제와 조선문학의 진로	91
배움의 감격	113
조선문예의 금일과 명일	116
조선문학의 참회	120
등포에게 부침	124
얼굴이 변한다	139
문사부대와 지원병	143
신체제하의 예술의 방향	144
신시대의 윤리	149
인간수행론	158
생사관	169
학명기(鶴鳴記)	177
행자(行者)	195
문인의 응수 — 육군기념일에際하여	206
대화속수양회잡기(大和塾修養會雜記)	216
일본문화와 조선 — 실생활을 중심으로	226
내선일체수상록	244
인생과 수도	254
근로와 문화	260
인고의 총후문화	269
사변(事變)과 조선	274
국가와 문화	279
긴박한 시국과 조선인	285
반도 민중의 애국운동	290
반도의 형제 자매에게 보냄	302
속·반도의 형제 자매에게 보냄	307
思想 함께 莢米를 격멸하라	313
태평양이여	315
생활도 결전적	318

가끔씩 부른 노래1)

天地 어디는 우리 집 아니라 진정 우러러 볼 빛이 있다면2)  
 좋은 사람의 글 읽고 문득念佛 아뢰는 몸 되었네3)  
 韓土의 二千萬 民草와 함께 임금님, 우리 임금님하고  
 우러러 받들도다4)  
 영원한 탁류에 힘뻐이는 黃河의 흐름도 맑아져  
 天皇의 나라5)가 되노라6)  
 영원히 어두운 내 영혼의 밤도 밝힐 듯 구름 끝에 빛나는 曙光7)  
 恩愛의 굴레 끊고 恩愛의 緣 닿은 것 구제하는 일이야말로8)  
 나라고 하는敵을 쳐 사십팔년9) 그 싸움은 작년에도 금년에도10)  
 참된 마음 가리키는 眞에 一念으로 나는 사노라 그날 그날을11)  
 이루지 못 하고 또 한 해를 보내는구나 來年에는 하고  
 또 맹세하면서12)

<번역>

- 1) 동양지광, 1939. 2. (일문) 이 작품의 원제는 「折にふれて歌へる」인데, 이는 “와개(和歌)”, 즉 일본의 옛 시가 형식인 “短歌”로 씌어진 것이다.
-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天地のいつくはわが家ならざらむ仰く御光果してあらねば”
-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好きな人の文讀む程に何時となく念佛申す身となりにけり”
- 4) 원문은 다음과 같다. “韓土の二千萬の民草と君わが君と仰ままつらむ”
- 5) 원문은 ‘君が代’임.
- 6)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とこしへの濁りに喘く黃河の流も澄みて君が代となる”
-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常闇の我が魂の夜も明けぬらむかの雲の端に映ゆる曙”
- 8) 원문은 다음과 같다. “恩愛の羈絶ちてぞ恩愛のえにしのものを救ひこそせめ”
- 9) 아미타불의 48본원을 이루는 시간을 뜻하는 뜻함.
- 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われと云ふかたきを討ちて四十八年そのなたかひは去年も今年も”
- 11)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まごころのしめす眞にひたすらにわれは生きまむその日その日”
- 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ひととせを又なすなくて過ごしけりある年はと又誓ひつつ”

군마(軍馬)	323
개회사	326
청년문답 — 인생관·국가관·연애관 등등	329
병역과 국어와 조선인	334
국어와 조선어	343
진병과 여성	347
앞으로 2년	353
사상의 간소화	362
대동아전쟁 일 주년을 맞는 나의 결의	371
국민문학 문제	372
문학의 신도표(新圖標)	375
병의 노래 모집에 讀辭	382
올바르게 사는 법	383
입학시험	390
兵制의 감격과 用意	393
대동아전쟁의 교훈	405
학병에게 감사	415
<입영기> 학병에게 보내는 세기의 감격	418
질투는 무음	421
청년과 今日	427
전쟁과 문학	435
반도청년에게 보냄-조선청년과 보실행	445
대동아문학의 길-대동아문학자대회 석상에서	451
전쟁과 문화	458

제3부. 좌담, 대담

문인의 입장에서	464
신체제하의 조선문학의 진로	474
춘원·오한 교담록	479
대담-我國은 君本主國-萬邦無比한 我國體를 알라	490



志願兵壯行歌<sup>13)</sup>

## 一

만세불너 그대를 보내는이날  
 임금님의 군사로 떠나가는길  
 우리나라 日本을 지키람시는  
 황송합신 뜻받아 가는志願兵

## 二

씩씩활사 끼끗한 그대의모양  
 미더웁고 튼튼키 태산갓고나  
 내고장이 나아준 皇軍의용사  
 임금님께 바치는 크나큰영광

## 三

統後奉公 뒤통은 우리차지니  
 갈데마다 忠誠과 용귀있으라  
 갈지어다 凱旋날 다시맞나자  
 둘러둘러 日章旗 불너라만세

13) 삼천리, 1989. 12.

迎年祈世<sup>14)</sup>

하늘이 붉으스레 솟아오른  
 새빛맞아  
 아시아 넓은무터 어두움을  
 벗엇더라  
 이빛이 어디서오뇨 우리  
 임금 이샷다

14) 경성일보, 1940. 1. 11. 한편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일어 번역이 붙어 있다.

“大空はあからみて/湧き上る新日の光に/大いなるアジアの陸は/常闇を脱ぎにけるかな/この光いつこよりぞ/わが大君にこそましますせ”

## 어버이 15)

—  
 어버이 없으시면 내 몸 없으리  
 어버이 겨오시매 내 몸 있도다  
 나라의 어버이신 임금이시오  
 내집의 어버이신 부모시로다

## 二

나라의 어버이께 충성 바치고  
 내집의 어버이께 효도 다하니  
 충성과 효도의 길 두홀이면서  
 근본은 하나일사 이 나라의 길

## 三

내 몸을 잊었으라 우리 임금의  
 나라를 위하사와, 선조대대의  
 조상님 세워주신 우리 가문을  
 맨대에 빛내임이 내 일생일세

## 우리집의 노래 16)

방치이고 소세하고 다 차렸느냐  
 언니, 누나 아우 누이 다 모이어라  
 아바님께 어머니께 인사드리자  
 밤사이에 안녕히들 주무셨는지

아바님과 어머니 앞을 서시고  
 언니 아우 항렬찾아 차례로 서서  
 신명전에 합장하고 귀원드리세  
 우리 나라 우리 집이 태평하소서

몸에 가득 아침하늘 해별을 받아  
 공송하게 가지런히 허리 굽혀서  
 우리 임금 친황폐하 겨오신 끝을  
 마음 모아 정성 모와 요배 드리세

동근 상에 들러앉아 은 집안 식구  
 받자옵는 아침밥의 고마움이어  
 한 그릇 밥 우리 상에 오르기 까지  
 들인 수고 생각하니 고개 숙어라

식구마다 제 일터로 찾아나갈 제  
 어느 일은 임금님의 일이 아닌가  
 부지런히 하듯 일을 마치고 나서  
 모여드는 우리 집의 즐거움이어

## 扶餘行17)

扶蘇山 올라서서 錦江을 굽어보니  
天政臺 나린물이 落花岩을 씻어돈다.  
半月城 여름비 개여 풀이 더욱 푸르더라,

千年이 꿈이런듯 옛서울을 못보아도  
瓦片에 새긴蓮葉 그날숨씨 완연하다.  
그文化 日本에 피어서 오늘 다시 보니라.

神宮 參道の 흙을 파서 날르을제  
扶蘇山 피꼬리 소리울어 보내더라,  
손들어 맘을 씻으며 귀기울여 듣노라.

## 宣戰大詔18)

“米國과 英國을 쳐라”  
하옵신 大詔를 나리시다  
十二月 八日 海들때  
빛나는 昭和十六年

하와이 眞珠灣에  
積惡을 따리는 皇軍의 叱 霹靂  
웨스트 버지니아와 오클라호마  
太平洋米艦隊 부서지다

이어서 치는 南洋의 海空陸  
푸린스·엄·웨일즈 英艦隊旗艦  
앵글의 罪惡과 運命을 안고  
구안탄 바다깊이 슬어져버리다.

亞細亞의 聖域은 原來  
天孫民族이 繁榮할 基業  
앵글의 발에 더럽힌지 二百年  
우리 임금 이제 光復을 宣하시다.

17) 신시대, 1941. 7. 188~189쪽.

18) 신시대, 1942. 1. 48~49쪽.

### 싱가포-르 함락되다<sup>29)</sup>

“싱가포-르 함락되다.”  
 밤 열시 삼십분.  
 “大本營 發表. 싱가포르-르는 함락되었노라”  
 고, 라디오오는 외친다.

“오후 일곱시 오십분  
 英軍 無條件降伏.  
 부키테마 陣地에서 英將 파-시바르  
 아파시파 將軍 앞에서 降伏狀에 署名했노라”고  
 때는 昭和 십칠년 이월 십오일.

아내가 울고,  
 내가 울고,  
 외치는 만세소리도 덜덜 떨렸다.  
 아내는 달려가, 병들어 누은 아들을 일으켜  
 “싱가포-르 함락했다”고 알렸다

29) 신시대, 1942. 3. 58-59쪽. (일문) 원제는 「싱가포르-르 함락되다」이고 원문은 다음과 같다.

“「シンガポール落つ」夜の十時三十分、「大本營發表シンガポールは落ちたり」ト、ラ  
 チオは叫べり、「午後七時五十分/英軍無條件降伏/フキテマ陣地にて英將、パ-シバル/山下  
 將軍の前にて降伏狀に署名せり」と/時は唯昭和十七年二月二十五日//素立ちり/我立ち  
 り/叫ぶ萬歳の聲もおおなるなりき/妻は走りて病みて寝ねる子を起し/シンガポール落  
 ちぬ」と告げにき//シンガポールの戦に/死せる英靈よ/擲ける勇士よ/よくぞ戦ひて勝ち  
 し/卿等の血は萬代に生きむ//アジア十億の胸はあきぬ/百年の難は討てり/明日よりぞ、  
 大アジアの陸に海に/驚ばしき新建設の月は明るく/あわわが任は重きかな”

### 元 旦<sup>19)</sup>

恩愛의 고삐 끊고 恩愛의 緣 닿은 것을 구제하는 일이야말로<sup>20)</sup>  
 나라고 하는 敵을 침에 사심팔년 그 싸움은 작년에도 금년에도<sup>21)</sup>  
 참된 마음 가리키는 眞에 一念으로 나는 따르노라 그날 그날을<sup>22)</sup>  
 (以上 昭和 十四年 己卯<sup>23)</sup>)

이룬 것 없이 쉬흔 살의 첫 태양을 우리르누나<sup>24)</sup>  
 神의 뜻대로 맑고 밝게 直을 내 마음으로 하노라 내 道로 하노라<sup>25)</sup>  
 쓸데없이 뜬 세상임을 알아버렸네 신 살의 내 첫 발걸음  
 생각하니<sup>26)</sup>  
 그렇다고 해서 죽어야 하는 일은 결코 없노라 자비의 눈물 끊이지 않는  
 동안은<sup>27)</sup> (以上 昭和 十六年 辛巳<sup>28)</sup>)  
 <번역>

19) 신시대, 1942. 1. 156쪽. (일문) 이는 「가끔씩 부르는 노래」와 함께 “短歌” 형식으  
 로 씌어진 것임.  
 20) 원문은 다음과 같다. “恩愛のきづなたちぞ 恩愛の縁のものを救ひこそせめ”  
 21) 원문은 다음과 같다. “われといふかなきを討ちて四十八年そのたなかひは 去年も今年  
 も”  
 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まごころのしめすまことにひたすらにわれしたがはんその日そ  
 の日に”  
 23) 서기 1939년.  
 24)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なすこともあらずして五十年のとしのはじめの日を仰ぐか  
 な”  
 25) 원문은 다음과 같다. “神ながら清く明く直きをぞわれここところせむむわが道とせむ”  
 26)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あちけなき浮世としりつ五十年のわが歩みきしみちおもへば”  
 27)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さればとすつすべきよにはあらざりしなさけの涙絶えざらむ間  
 は”  
 28) 서기 1941년.

眞珠灣의 九軍神<sup>31)</sup>

眞珠灣의 九位勇士의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스물두살에서 스물여덟살까지의 靑年인 그들이. 아직 수염도 다 안난  
그이들은 日本의 神이 되셨다.  
대관절 사람이 이 世上에 무엇하러 왔나?  
이 몸이란 무엇에 쓰자는 것인가.  
나서는 자라서는 울다가는 웃다가는 사랑하다가는 미워하다가는 앓다  
가는죽으리 왔나?  
날마다 時刻마다 나는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건마는, 나서 냈던  
보람, 죽어서 죽은 보람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北邱山의 무덤들을 보라. 모도 울퉁불퉁 다 같은 흙 한줌.  
죽기는 저마다 죽더라 마는 값있게 소리나게 죽는자는  
많지못하더라.

사람이 나는것이 天이 命하심이라 할진댄<sup>32)</sup>, 天에서 받은  
使命이 있을것이.  
鐘路네거리 바다와 같이 넓은 길에 물결과 같이 많은 사람아, 잠깐 길  
음을 멈추고 대답하여라, 네 使命이 무엇이나. 네 무엇하러 世上에 왔노?  
어찌다가 죽으랴는고?  
먹다가 마시다가 웃다가 울다가 앓다가 그렇게 죽으랴는가.<sup>33)</sup>

<번역>

싱가포르의 전투에서  
돌아가신 英靈이여  
다치신 勇士여,  
용케도 싸워 이겼으니,  
卿들의 피는 萬代에 살리라  
아시아 십여의 마음은 열렸다.  
백년의 고난은 토벌되고  
내일부터다, 대아시아의 땅에 바다에  
기쁜 新建設의 달<sup>30)</sup>은 밝아온다.  
아아 우리 임무는 무겁구나

30) 원문은 '月'로 되어 있으나 이는 '日', 즉 '태양'의 오식일 수도 있다.

31) 신시대, 1942. 4. 54~57쪽. 여기서 말하는 아홉 군신이란 진주만공격 때 죽은 岩佐直治, 古野繁實, 橫山正俊, 廣尾彰, 橫山薫範, 佐佐木直吉, 上田定, 稻川滿, 片山義雄을 말한다.

32) 원문엔 '할지엔' (신시대, 1942. 4. 54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오식인 듯함.

33) 원문엔 '으죽랴는가' (55쪽)로 되어 있으나 이는 '죽으랴는가'의 명백한 오식임.

“滿足과 感謝의 微笑, 所願成就의 大安息.”

그의 무덤은 어딘가.  
太平洋이 온통 岩佐佐의 무덤이라고 하리라미는 그는 죽지아니하였  
오래 무덤이 무슨 所用이라.

彌阿里共同墓地의 累累한 墳墓를 바라보고 내 벗은 웨치니라,  
“못노라 저 무덤속에 누은 先輩들아, 그대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었  
느냐. 우리의게 무엇을 남기고 죽었느냐. 무슨 記憶을, 무슨 德을 끼치고  
죽었느냐”고.

그때에 무덤들은 默默하더라.

鐘路네거리에 오고가는 사람들아,  
잠간 발을 멈추고 생각하라,  
“내가 누구냐.”  
“내가 어찌 있는가.”  
“내가 무슨 使命, 무슨 願을 가지고 왔는가.”  
“내가 이몸을 어떻게 쓸까.”

사람들은 죽기 위하여서 났나니라. 죽는날 하로야말로 一生의 目的이  
니라.  
一生의 努力이 한날의 죽음을 爲한 準備일 때에 그 一生은 바른 一生  
이니라.  
眞珠灣의 九勇士는 우리의게 이렇게 가르치니라.

사람이 나는것이 무슨 願을 가지고 나는것이라 하면,  
鐘路네거리, 大踏步하시는 사람들아, 저마다 다 잘난 사람들아 대답하  
라, 네 願이 무엇이다나.

어머니 배에서 나오던 날, 어머니 陣痛서품에 使命도 願도 다 이지버  
리고 世上에 뚝 떨어진 때에는 鬻門모르는 친동별거승이었어라.

“내가 누구야?”  
“제가 어찌야?”  
“내가 무엇하러 왔어?”  
鐘路네거리에 분주히 오고가는 사람들을 막아놓고 물어보니 모도 이  
대답일거라.

岩佐中佐여. 대답하라.  
“그대는 누구냐.”  
“나는 日本人이로라.”  
“그대는 어찌 있느냐.”  
“나는 나는 우리 임금의 나라 日本에 있노라.”  
“그대는 무엇하러 왔는가. 使命은 무엇, 願은 무엇?”  
“나는 世生生에 皇運을 翼贊하리라는 願으로 왔노라. 내게 使命을  
주시는 이는 오직 우리 임금님이시라.”

“그대는 二十七年間 무엇을 바라고 살아왔고.”  
“나는 먹고마시어 이 몸을 길우고 배우고 鍛鍊하여 이몸의 힘을 느려  
서 임금님의 부르시는 날에 가장 잘 그 使命을 達하기를 바랐노라.”  
“그대는 特別潛航艇에 몸을담고 眞珠灣敵陣에 突入할때에, 어떠한  
感想이었단고.”

“반다시 敵을 滅하리라는 一念뿐이었노라.”  
“敵艦을 깨트린 때에는?”  
“아아 내 世上에 왔던 使命을 達하였도다. 陛下의 하람신 일을 일우었  
도다. 하고 목이 터지도록 萬歲를 불렀노라.”  
“죽을 瞬間에는?”

展 望<sup>34)</sup>

한편으로 아시아의 大陸을 정복하며  
 한편으로 太平洋의 섬들을 키우며  
 우리 日本은 君臨한다  
 神의 나라, 皇의 나라, 후지산<sup>35)</sup>의 나라, 美와 사랑의 나라

그것은 틀림없이 멋진 일일 것이다  
 이 地球가 전에 본 적 없는  
 멋진 世界임에 틀림없다 —  
 우리들이 지금 짓고 있는 大東亞는

보라, 저 아름답고 풍성한 南方을  
 저 추위도 더위도 혹독한 북의 曠野를  
 그리고, 그 사이에 펼쳐지는  
 溫和하고 變化 많은 우리 溫帶를

저 南半球의 女王 오스트레일리아도  
 그 곁에서 헤엄치는 뉴질랜드도  
 그 만큼 아름다운 하와이도  
 모두 아시아 대륙의 아이들이다



萬世一系の 天皇 여기 계시며  
 忠孝一本의 백성 이 땅에 번영한다  
 일찌기 善한 人類文化의 搖籃이었듯이  
 앞으로 人類救濟의 發祥은 이 땅

34) 능기, 1943. 1. 116~118쪽. (일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それはさぞすばらしいものに違ひない/この地球が嘗つて見たことのない/すばらしい世界に違ひない —— /われらが現に乗っている大東亞は//見よ、かの美しくて豊かな南方を/かの寒さも暑さも厳しい北の曠野を/そして、その間に廣がれる/溫和な、變化に富んだわが温帯を//かの南半球の女王オーストラリヤも/その傍に泳げるニユージーランドも/それに劣らぬ美しい布哇も/それは皆アジア大陸の子供等だ//一方にアジアの大陸を従へ/一方に太平洋の島島を育て/わが日本は君臨する/神の國、皇の國、富士の國、美と愛の國/アジアに春の盡くことなし/夏の茂り秋の穂り常にあり/玉なす米のなる土地、金や石油の湧く土地/アジアに乏しきものありや —— なし//その民十億、容美しく心賢し/強きこと鐵の如く、柔かなること金の如し/慈悲を好み、美しき好み、己なくして人を慈しむを業とす//萬世一系の天皇ここにいまし、忠孝一本の民この土地に榮ゆ/嘗つて人類の善き文化の搖籃たりし如く/將に人類救濟の發祥はこの地/この土、この民もちて造らむ/新しき世界 —— 皇道の大東亞/その安き、樂しき、美しき/その大いなる輝 —— それはさぞすばらしいものに違ひない”

<번역>

이 땅, 이 백성으로 이룰 것이다  
 새로운 世界 —— 皇道의 大東亞  
 그 편안함, 즐거움, 아름다움  
 그 커다란 빛 —— 그것은 틀림없이 멋진 일일 것이다

35) 『친일문학작품선집 1』(김규동·김병걸 편)에는 “부유한 나라”로 되어있으나, 원문이 ‘富士の國’이므로 “후지산의 나라”라고 번역한다.